

新生 - 1930. 04. 10

임마누엘 · 칸트

(이 달의哲人)

柳滢基

近代哲學의 偉人인 임마누엘 · 칸트는 一千七百二十四年 四月二十二日에 英國哲人「테옌 · 흄」이난지 十三年後「푸러시아」의 「쾨니히스베르그」城에서 첫 소리를 냈다.

그의 祖父는 英國北部인「스카트란드」사람으로 第十七世紀 末葉에 獨逸로 移民하여 들어와 살며 그 이름의 綴字도 Cant 든 것을 Kant로 굳혔다는데 그 까닭인즉 獨逸語에 C는 Z로 發音이 되어 「칸트」가 「찬트」로 불리어지는 理由이었다.

칸트의父親은 말뚝치를 만드는 貧寒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敬虔한 信仰을 가진 男女들은 다 그러한 信仰이 없는 이들보담 무엇으로 보던지 優勝하다」고 말하였다.

偉人은 대개 賢母를 타고 나는듯하다. 칸트도 그母親에게 대하여 『나는 平生에 나의 어머님을 잊을 수 없다. 나에게 만일 착한이 잇다면 그는 나의 어머니께서 심어 주신 것이다. 그는 나로 하여금 自然을사랑하게하였으며 나의 생각을 넓게 하여 주셨고 그의 敎訓은 나의 一生을 通하여 가장 健全한영향을주고있다』고 自白하였으며 칸트의 머리털이 눈발같이 희어진 후에도 그의 母親을 생각하고는 感激한 눈물을 흘리었다.

칸트의 母親은 그天才인 아들의 나이 겨우 十三歲때 世上을 떠났다. 十歲에 小學校에 入學하여 古典文學을 공부하며 後日 文學家가 될 決心을 하였으나 十六歲에 在學에 入學하여 數學과 哲學을 專攻하며 마침내 神學科를 卒業하였는데 神學在學中 이따금 教堂에서 說敎도 하였다. 大學을 卒業하는 동안 그의 趣味가 變한것도 事實이었으나 칸트로 하여금 牧師의 이름을 못 가지게 한 것은 그의 卒業後 就職難의 關係었다.

大學在學中에도 時間敎師노릇을 하여가며 學費의不足을 돕는 것인데 칸트의 二十二歲때 그의 父親이 別世하매 그때부터는 自立 · 自營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九年동안은 어떤 貴族의 家庭敎師로 歲月을 보내며 그동안 論文들을 發表하였는데 그의 둘째 論文은 달의 長短과 달의 同面이 늘 땅에 빛인다는 것인데 一七五五年에 『天體概觀』이란 이름으로 二百頁의 大論文을 發表하였다.

一七六三年에 『神의 存在에 對한 證據』라는 論文을 發表하였으며 이때에 벌써 그의 이름은 學界에 높았다. 一七五五年以來 母校의 講師로 地理・天文・數學・物理에 대한 講演을 하였으며 講師가 된지 十五年후에야 겨우 敎授가 되어 論理學과 形而上學을 가르쳤다.

칸트의 講演中 第一人氣를 끈 것은 그의 地理時間이었다. 그는 비록 生地인 『괴니히스뵐』을 떠나본 일이 없으나 그의 想像力이 超越한 關係로 어떤 날 英國 웨스트민스터橋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잘하였든지 聽衆에 잇든 어떤 英人은 칸트가 英京에 오래 살었든 技師인줄 알았다 하며 또 어떤 날은 伊太利에 對한 講演을 伊國에 數十年동안 살었든 사람 같이 하여드는 이들을 놀래게 하였다.

그의 地理와 人類學講演外에는 넘우 어려웠음으로 學生들이 혹 『先生님의 講演은 넘우 어려워서 못 견대겠습니다』고 말하면 『네-나의 講演은 思索家만 相對로 하는 것입니다』고 對答하였다.

講演할 때는 그 中에 第一 鈍하게 보이는 學生을 바라다보며 그 學生이 理解하는 듯한 氣色이 보이기까지 說明하였다. 그러나 혹 그러한 學生이 머리를 잘 아니 비췄다 던지 혹은 옷에 단추를 잃었다던지 하면 칸트는 거기에 精神이 석갈리어 講演에 께 困難을 당하는 것이 常例였다.

一七七二年에 그의 大作「純正理性批判」을 起稿하여 三個月동안에 마치려 한 것이 九年의 긴 歲月을 걸리어 칸트의 五十七歲時에야 겨우 脫稿하였다. 一七八六年에 『自然科學의 形而上學的 要素』 一七八七年에 『道德의 形而上學的原理』・一七八八年에 『實踐理性批判』・一七九년에 『判斷의批判』等を 出版하였다.

學生이 講演을 들으며 筆記를 하면 거기에 精神이 쉬갈리어서 講演의 本意를 理解하기에 어렵다하여 學生들이 들었든 鉛筆을 놓기까지는 講演을 아니 하였다.

칸트는 五呎에 지나지 못하는 弱한 몸을 가지었으나 그의 무서운 規則的 生活의 德으로 八十歲까지 健康하게 지냈다.

六十三歲되든해까지 自己의 집이 없는 칸트는 여기저기로 다니며 食事を 하였다. 그러나 그의 食事時間은 絶對로 學理에 對한 이야기는 아니 하기로 하고 親友들과 愉快히 이야기하기를 즐기었다. 六十三歲되든해부터는 自己의

집을 마련하고 오직 한 끼인 下午一時正刻에 點心은 가까운 벗들을 請하여 한가지로 飮食을 나누며 二三時間을 지냈다.

第七十九回生辰을 맞을 적에 벗들에게 『나는 죽기를 무서워아니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날더러 너는 八十年동안에 남에게 많은 괴로움을 끼친놈이라 하시면 나는 아니올시다』고 對答하겠다. 나의 一生은 努力과 苦痛이었다. 이 저녁에 만일 죽음의 神이 나를 부르려오면 나는 잘하셨습니다고 손을 들어 神을 祝福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때까지는 眼鏡도 없이 적은 活字라도 쉬게 읽었으나 그의 마즈막 生辰이 지나자 二十年前부터 한눈으로만 쓰든 그 눈까지 어두어졌다. 그리하여 一八〇四年二月에 努力과 孤獨의 世上을 떠났다. 그는 무엇이던지 먼저 哲學的論理的으로 깊이 생각하고야 着手한 까닭으로 婚姻을 하고 家庭을 일우면 思索生活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깨달았던지 平生을 獨身으로 살았다. 그는 어디로 보든지 偉大한 사람이었다.